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여름호 | 2013년 7월 15일

발행인 유병우
 편집인 이성운·한석홍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번지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여형구 차관 “감차 문제 등 T/F팀 구성 논의하자” 시도 이사장 “정부 재정지원 의지... 필요 공감”

연합회 방문 간담회 가져

7월 5일 오전 11시- 여형구 국토 교통부 제 2차관이 시·도 조합 이사장 회의가 열리는 우리 연합회를 방문했다.

박종흠 교통물류실장과 함께 우리 연합회 시·도 조합 이사장 회의가 열리는 2층 회의실을 방문한 여차관은 유병우 회장의 안내로 시·도 조합 이사장들과 일일히 악수하고 유회장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여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택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업계의 요구에 많이 부족했었고 택시 산업의 여건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며 정부도 여러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고 T/F팀을 구성하여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사회가 막 끝나자마자 여차관을 맞은 회의장은 잠시동안 긴장이 흐르기도 했다.

유병우 회장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형구 차관께서 연합회를 방문하여



▲ 여형구 차관(좌측),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우측)

주신데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고 이사장들도 기탄없는 질문을 통해 현안 해결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김남완 전남 이사장이 “택시 업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차관님을 어렵게 만난 자리이니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정

부와 업계 사이에 대화가 없었다. 정부가 업계의 문제점을 보지 못한데서 택시 업계의 현안이 커졌다. 국회에 넘어간 택시 발전법을 토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민간 합동 T/F팀에 개인 택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수를 많이 배려하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또한 김순락 대구조합 이사장도 “정부와 택시 업계가 자주 만나 현안을 터놓고 토론하는 기회를 차관께서 배려해달라.

오늘 우리 연합회를 방문한 목적이 업계를 달래기 위한 것이 되지 않고 미래의 택시 업계 현안을 토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형구 차관은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제한 후 “대중교통법이든 택시 발전법이든 법률안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택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업계의 협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충북조합 최현태 이사장, 전북조합 박상익 이사장, 강원조합 김주원 이사장, 충남조합 김혜경 이사장, 경기조합 조창영 이사장 등이 연달아 ▲택시의 연료비·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 ▲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 3면에 계속 >

**파워는 2500cc급!
연비는 중형 최강!**

TV 광고를 보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파워에 연비까지 강한' '보라' '그게 가능할까?'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카피 때문. 미래형 터보 엔진으로 SM5 TCE의 광고 이야기다. 차는 그동안 젊고 스포티한 모델의 트림명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된 SM5 TCE는 기존 중형이라고 볼 수 없었던 기존과 달리 성능 레이드를 실시하며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SM5 TCE를 차근차근 하고 시작하자면 이 모델이 아닌 속이다.

**중형이 아니다
미래형이다**

파워에 연비까지 강한
미래형 터보엔진 SM5 TCE

할 수 있는 엔진과 트랜스미션(변속기)을 통해 짜르기 때문이다. TCE는 Turbo Charged Efficiency의 약자다. 이름 그대로 최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터보엔진이다. 변속기가 있어야 제 실력이 발휘되는 경우라면 두말하면 잔소리 없이 터보엔진과 변속기 조합은 가장 좋은 조합이다. 유선 터보의 장점이다.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중형세단의 상식을 깨 파워와 연비, SM5 TCE로 만나십시오 190마력의 파워를 13.0km/l 중형 최강의 연비로 즐기는 꿈같은 일. 지금 그 상상도 못했던 드라이빙을 직접 경험해보십시오

- ▶ 최첨단 터보 엔진의 강력한 드라이브 및 산 최상의 GDI Turbo 엔진
- ▶ 세계가 인정된 GETRAG사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Powershift® DCT 채택
- ▶ Dynamic Exterior - 17" 루틴 알로이 휠(TCE 전용), TCE/XE 엠블럼, 듀얼 머플러
- ▶ Unique & Sporty Interior - XE 프론트 시트, 화이트 필 테코레이션
- ▶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M5 MR1800T GDI Turbo 엔진 : 복합 연비 13.0km/l (도시 : 11.3km/l, 고속도로 : 15.7km/l), 듀얼 클러치 (DCT), CO2 배출량 134g/km, 배기량 1,618cc, 공차중량 1,355kg, 3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비센터 (011-301-3001) 또는 2013년 7월 15일 홈페이지(www.renaultsamsung.com)으로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RENAULT SAMSUNG MOTORS

정부는 이제라도 택시업계를 살리려는 의지 보여야

제9대 회장 취임사

현재의 경영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택시업계가 한단계 도약하도록 역량 집중할 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회는 지난 5월 7일 “제8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연합회장 선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제9대회장에 연임되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에게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점 널리 양해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지면을 통해서나마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선의 영광보다는 어느것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16만 사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두어개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택시업계의 현실을 바라보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택시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때!

더욱 더 단합하고 열심히 해서 기어코 개인택시업계를 살려내라는 16만 사업자 여러분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초심을 잃지않고 엄중히 과업을 수행해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연합회장 취임 이후 6년여 동안 남다른 각오로 택시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재직기간 저의 활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한 지난한 투쟁과 협상의 연속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안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 및 개선 하였으며,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감차제도 도입, 지역별총량제 개선, 개인택시 차량 연장에 따른 연장검사제도 개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지원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제7대회장 취임 이후 택시업계 최초로 우리 연합회가 주도하여“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등을 의원입법하여 추진 하였으나 일부 위정자들의 비협조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번번히 좌절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최우선 과제로써 개인택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법률 개정 및 입법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임·직원은 국회로 정부로 사즉생의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안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정부는 6월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지원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부터 업계재원과 정부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복지기금조성’ ‘압축천연가스(CNG)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과 대비하여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와 법률보다도 택시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택시업계를 살리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합회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택시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여 우리 사업자 모두가 안정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양도·양수 제한, 상속금지, 연령제한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의 재산권을 확실히 지켜 내겠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택시운송비용중 LPG(부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LPG(부탄)수입·제조사들의 독과점 영업으로 그들의 배만 불러주고 있습니다. LPG(부탄)의 최대 소비자인 택시업계는 수입·제조사들의 횡포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연료다변화를 통하여 운송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출시가 임박한 전기자동차의 택시 상용화에 대해서도 충전소 등 기반구축, 차량 구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도 예의 주시하고 심도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전용차로 진입,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세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사업자 여러분!

예년 보다 일찍 시작한 장마가 반복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업 종사자는 업무의 특성상 타업종에 비해 건강에 취약한 처지에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나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재임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연합회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만발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 유병우

<http://www.ts2020.kr>



All
차량·좌석

**전차량·전좌석 안전띠,
이젠 필수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차사율 3배, 상해 가능성 18배 증가되며,
특히, 차 밖으로 튕겨나갈 확률이 높아
이 경우 24배나 높은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승관처럼 안전띠 All Check On!

< 1면에 계속 >

법 개정 ▲토요일·일요일·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고속도로 진입허용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 및 감가 상각에 준하는 국가 지원 ▲개인택시 밤샘주차 대상 제외 ▲LPG 최고가격제 실시 ▲클린 디젤 및 CNG등 택시 연료 다변화에 따른 유류 전액 면세 및 유가 지원 ▲택시요금 연동제 실시 ▲감차 보상 현실화 등 택시 업계 현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택시 발전 지원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다양하게 쏟아진 이사장들의 질문을 경청한 여차관은 “현장(택시업계)를 중시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중시하겠다. 문제의 핵심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총량제에 대한 감차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자율 감차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 우리 연합회 16개 시·도 이사장과 함께 택시 현안을 토의하는 여형구 차관(좌측)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중요한 것은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택시 발전 지원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9월 정기 국회

가 열리는 3개월 동안 시간을 갖고 많은 논의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성심껏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들의 질문에 즉답은 피해갔지만

전국 16개 시·도 이사장과 만난 여형구 차관은 택시 업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한 중요한 간담회였다.

< 김관술 기자 >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제9대 회장 취임식 생략, 직원과 오찬으로 대신

“실사구시” 정신으로 업무에 매진할것 당부

제 9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평소처럼 노타이 차림으로 출근한 유병우 회장은 이성운 실장으로부터 7월 정기이사회 안건을 결재하는 일로 9대 회장 임기의 회장 업무를 시작했다. 외부인사를 초청, 성대하게 열리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연합회와 공제 직원들과 간단한 오찬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이날 오전 12시부터 진행된 오찬을 통

하여 유병우 회장은 택시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엄중한 현실앞에서 보여주기식 과시나 요식행위는 16만 개인택시사업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성대한 취임식은 생략했다며 회장이 앞장서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니 연합회·공제 직원 여러분도 그 어느때 보다도 심기일전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봉사과 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유병우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감차보상 문제가 화두로 떠올리면서 특히 개인택시 업계는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서 감차보상 지원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보상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실거래가에 준하는 감차제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자가용자동차 등 불법여객운송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택시요금조정의 정례화 및 택시연료에 부과되는 각종 부과세 감면, 또한 LPG(부탄)연료가 택시운

송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여 열심히 일해서 제조사·정유사 배만 불러주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 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NG, 클린경유 등 택시연료를 조속히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통행을 허용 해줄것을 적극 건의하고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행사는 실리를 중시하는 유병우 회장의 평소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농협 개인택시 사업자 대출

- ◆ 개인택시 신규 사업자 특별대출 500만원~3000만원 이상
- ◆ 개인택시 사업자님들께서 쓰고 계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 해드립니다.

★취급수수료, 차량설정부 면제(단, 인지세는 50% 본인부담)★

- 자격 : 개인택시 사업자 or 신규사업 예정자
- 한도 : 500만원 ~ 3000만원 (원리금 균등 상환)
- 조건 : 신차할부, LPG충전소 선설정 있어도 대출가능
기존 대출자 (추가대출 가능)
- *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최대 60개월까지 가능

대출금액	36개월	월 평균 이자금액
500만원	173,326원	34,437원
1000만원	346,653원	68,875원
2000만원	693,306원	137,751원
3000만원	1,039,959원	206,626원

* 3000만원은 신규사업자만 가능

- 심사서류 : 신분증 사본(전화번호기재),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갑1부, 을1부
* Fax 02-6442-8406로 보내주시면 대출가능여부 확인!
- 자서시 필요서류 : 인감2부, 주민등본1부, 주민초본(주소이력포함)1부, 농협통장 사본, 신분증, 인감도장
- 대출순서 : 전화상담 ▷ 서류 팩스심사 ▷ 자서 ▷ 승인(자서후 당일 송금 원칙)

*대출기관은 지역 농협으로 특별 대출 건입니다

전화번호 : 063-453-7848 FAX : 02-6442-8406
담당 : 이준호 팀장 010-5029-3334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유가폭등 · 재정지원 부재 · 불합리한 규제가 경영난 원인 “3대 원인을 제거하는 입법 추진에 역량 집중할 터”

7월1일 우리연합회 제9대 유병우 회장이 취임하므로써

제9대 연합회장 시대가 개막되었다. 유회장은 연합회장은 충남조합이사장 신분으로 제7대 연합회장 선거에 도전 당선된 후 제8대 연합회장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또한 지난 6월에 실시된 제9대 연합회장선거에서도 당선되어 세 번 출마하여 세 번 당선하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제7대회장에 취임하여 두 번이나 재신임을 획득한 성공비결이 궁금하다. 또한 3연임하는 회장으로서 교착상태에 빠진 택시관련법 추진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역삼동 개인택시연합회관 2층 회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관술 기자(이하 김기자): 세 번씩이나 선거라는 어려운 관문을 극복하고 제9대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16만 조합원과 함께 취임을 축하드리고 동시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먼저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9대 연합회장직을 시작하면서 각오를 밝혀주시오

유병우 회장(이하 유회장): 선거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당선의 기쁨보다도 무거운 중압감을 느낍니다.

연합회장으로서 현안문제 해결에 무한책임을 지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후보였던 김남완 이사장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두 손 잡고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연합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리라고 기대 합니다. 현재 택시사업은 유가폭등, 재정적 지원 부재, 불합리한 규제, 자가용 대리운전, 렌트카 등 불법유사여객운송행위 등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회생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실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에서는 선뜻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기간 동안 초지일관 개인택시 현안문제 해결에 진력할 것입니다.

김 기자 : 회장님께서 7대 회장 취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에 대한 관심도 지원도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부임하자 곧바로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 제정을 화두로 던지



셨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회장님의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입법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택시진흥특별법이 입법되지는 않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감차보상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입법 추진방향을 말씀하여주시오

유 회장 : 7대회장 취임 후 택시업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제정을 제안하자 업계는 물론이고 택시종사자들도 반신반의 했고 다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한 처방과 대응이 아니고서는 택시발전에 있어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할 것이라 판단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취임 후 국회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의원간담회 각당 지도부 간담회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택시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이법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김선미, 허태열, 이시종, 박상돈 국회의원 등이 입법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택시업계의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16만 사업자로 구성된 우리 연합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초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연합회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업권보호, 둘째도 업권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 택시업계가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있어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입법이 되어도 우리 개인택시사업자가 받아야할 혜택이 법인택시 쪽에 빼앗긴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유 회장 :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가 유사 이래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정국의 핵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택시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파이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한쪽이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누어야 할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양보도 지양해야 하겠지만 소탐대실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과 법인택시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여 지향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 발전법안과 업계 주장이 반영된 대중교통법안과 상관없이 정부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 해 주십시오.

유 회장 : 감차보상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개인택시업계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감차보상 지원 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보상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준하는 감차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등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요금조정을 정례화 하고 택시연료에 부과되는 부과세를 감면하여야 합니다.

LPG(부탄)이 택시운송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제조사·정유사 배만 불러주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NG, 클린경유 등 택시연료를 조속히 다변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통행을 허용 해줄것을 적극 건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기자 :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아무쪼록 책임기간 동안 현안문제가 해결되어 개인택시사업자가 일할 맛이 생기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유 회장 : 사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조합 창립 제43주년 기념행사

택시요금인상 촉구 결의대회 성료

지난 4월 25일 택시요금인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식발식에 이어 5월 21일 11:30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택시요금인상 촉구 결의대회 및 조합 창립 제43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화창한 날씨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택시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택시요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와 아울러 조합 창립 제43주년 기념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국철희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무분별한 택시증차 및 비현실적인 요

금 등 택시정책에 대한 단일한 정책일변도로 관계부처가 오히려 택시업계를 도탄에 빠뜨렸다.”며 택시요금의 즉각적인 인상 및 2년주기 요금조정의 확립, 폐지되었던 시계의 할증요금 부활과 더불어 심야할증과의 복합할증 시행 및 서울, 경기, 인천 요금표준화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감차보상계획 수립과 비효율적인 심야버스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덧붙여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 지도부 간부(임원 및 대의원과 18개 지부장·부지부장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과 경기·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서울조합>

택시문제 해법찾기 정책토론회

박원순 시장 서울조합 복지신청충전소 방문



지난 6월 3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주관 『택시문제 해법찾기』를 위한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조합 지도부(임원 및 대의원, 지부장·부지부장)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내 택시요금인상 촉구하고 아울러 향후 택시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택시요금 및 감차계획 등의 택시업계의 굵직한 현안 문제에서부터 서울시 당국의 택시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미흡한 복지정

책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전반적인 택시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졌다.

한편, 정책토론회에 이어 오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자들이 직접 양천구에 위치한 조합 복지신청충전소를 방문하여 개인택시조합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합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조속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서울조합>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 신교통문화운동’ 가두 캠페인 실시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박권수)은 부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부산 신교통문화운동’과 관련하여 이 운동의 범시민적 추진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매월 1회 이상 부산 시내 주요 교차로 7개 지역에서 소속 조합원과 임·직원 450명을 동원하여 ‘부산 신교통문화운동’ 실천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 신교통문화운동’은 21세기 글로벌 도시 부산에 걸 맞는 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부산교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 실천 방향으로 불법 주·정차 안하기, 버스전용차로 지키기 등 ‘우선 실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계도, 교육 및 단속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산개인택시조합에서는 참여주체로서 이 운동의 실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가두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성

과를 효과적으로 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두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권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1만 4천 전 소속 조합원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부산 신교통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내부 실천과제로 『품격있는 택시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개인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실천 10대과제
- ① 불법 주·정차 안하기 ② 버스전용차로 준수 ③ 교통신호 지키기 ④ 중앙선 준수하기 ⑤ 방향지시등 점등하기 ⑥ 안전띠 착용하기 ⑦ 정류장 정위치 정차하기 ⑧ 통행속도 준수(시내 60km/h, 전용 80km/h) ⑨ 나홀로 운행 안하기 ⑩ 도로 무단횡단 안하기(보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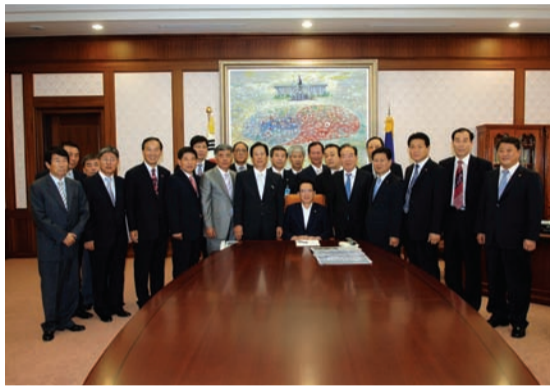
<부산조합>

사진으로 보는 유병우 회장 6년활동 이모저모

2008년
~2009년



▲ 2008. 09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초청 택시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 2008. 09. 10 16개 시도 이사장과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과와의 간담회



▲ 2009. 05. 08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의원을 만나 택시특별법을 청원했다.

간담회
및 시무식



▲ 2011. 06. 10 허태열 국회의정무위원을 초청, 이 사장과 함께 업계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 2012. 01. 02 형식을 파괴한 간소한 시무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악수하는 유회장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2012. 06. 20 개인택시 사업자를 비롯한 법인 택시 종사자와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 2012. 06. 20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결의의 사수대회 현장에서 KBS와 인터뷰



▲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환담



▲ 김남완 전남 이사장과 함께 박지원(민주당) 의원과 향후대책을 협의하는 유병우 회장



▲ 택시 생존권 사수대회를 주도한 유병우 회장이단상에 올라 택시 업계를 살려달라고 규탄했다.



2012. 10. 22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간담회

▲ 2012. 10. 22 연합회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간담회를 마치고 시도 이사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 대통령되시면 택시업계 잘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후 기념사진.



▲ 박근혜 후보와 김남완 전남 이사장, 나란히 앉아 업계 현안을 설명하는 유 회장 (좌측 첫번째)

2013. 4. 15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간담회



▲ 2013. 04. 15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사장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교통법 통과를 협의했다.

2013년 공제조합 전 지부 등급제 시행

손해보험사에서 2007년부터 기존의 할인할증 요율제를 등급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제조합도 손보사와의 경쟁력 제고 및 할인할증제도 상이로 인한 혼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약관변경 승인을 받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급제란 기존의 요율제(표준요율 최저 40%~최고 200%)를 개선하여 1등급부터 23등급까지 세분화 한 후, 등급별 적용요율에 따라 분담금(보험료)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공제조합은 초기인 2009년 4월부터 요율제에서 등급제로 약관변경 승인 이후 6개 지부가 등급제로 먼저 전환하였고 이후 확대 시행하다 2013년 4월 강원지부를 마지막으로 전 지부가 등급제로 전환되었다.

요율제에서 등급제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첫째, 「요율제」의 경우 요율 간 적용률이 10%로 고정되어 있어 계층별 **손해율** ① 등의 실적통계가 분담금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둘째, 할인할증 적용률이 낮은 계층일수록 손해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초래된 점, 셋째, 고(고)할인계층의 분담금의 부족분이 저(저)할인계층에 전가되어 사고발생 시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넷째, 장

기 무사고 조합원에 대한 보호장치【등급제-보호등급(P)】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등급제 도입효과와 관련하여 할인할증 등급제 적용시 최초가입(11등급)후 최저가입(23P-보호등급)까지의 도달기간이 기존의 요율제 보다는 연장되는 점은 있지만, 적용등급을 세분화하여 등급 간 요율격차를 줄임으로써 사고발생시 할증 폭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위험도가 낮은 고(고)할인계층(19등급~23등급)의 등급 간 적용률의 격차를 1% 단위로 산정하여 할증 폭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다.

또한 전 지부 평균손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만계층에 대해 ±할인할증폭을 부과하여 각 계층 간의 적합한 요율을 책정함으로써 요율별 형평성에 적합한 요율을 부과하게 되었고 실적손해율에 따른 조정요인으로 조정된 분담금에 대하여 적용 이후 손해발생상황의 시차에 따른 요인 즉, 임금, 치료비, 정비공임 등 보험원이 변동률과 사고발생률 변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기존의 할인할증 요율제에서는 적정 요율의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것에 반해 등급제에서는 적용 등급별 요율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리

고 사고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신규자 및 양수자)에게는 특별 가산요율을 적용하는 등 수입보전을 위한 다양한 요율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등급제 전환으로 인해 요율제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고 계약자간의 분담금 부담의 불균형 해소와 해당 등급별로 적정 손해율이 부과되어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특정계층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 무사고 조합원에 대한 보호 장치에 해당되는 것인 무사고 운행으로 최저등급인 23P 등급(보호등급)을 적용받는 계약자는 사고로 인한 **사고기록점수**②가 1.5점 이하인 경우 등급 간 할증을 적용하지 않으며(보호등급만 해제됨) 2점 이상의 사고인 경우에도 1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등급 간 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등급 계약자와의 차별화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할인할증 등급제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기준통계와 손해율, 향후변동요인 등을 제고하여 보험료 가격자율화에 따른 손보사 보다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손해율① : 공제조합 손익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공제(보험)경영에 있어 가장 핵심요소로 조합원이 낸 보험료에 대해 공제조합이 부담한 공제금의 비율임

* 사고기록점수② : 등급요율의 결정시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는데, 사고기록점수는 매 건별 사고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함.

우리연합회 복지사업본부 운영

우리 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조합에 복지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 사업 본부를 운영한다.

유병우 회장은 7월 15일 현재 인터넷 개인 택시 신문 오승근 편집인을 복지사업본부장으로 영입했다.

한편 오승근 복지사업본부장은 “복지사업본부에서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구매 사업의 활성화, 지역별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마련하

고 우선 개인택시차량과 밀접한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등을 산하조합 또는 지부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합원이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복지사업본부 오승근 본부장
연락처 : 010-2228-8019

천만 라이더 시대, 자전거 교통사고의 특징과 유의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전거 이용자가 천만을 돌파했다. 그러나 자동차 소동위주의 도로교통체제와 안전의식부족으로 사고 또한 이용자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교통사고의 특성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0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전체사고에서 자전거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2003년 2.5%에서 2012년 5.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자전거교통사고는 총 36,288건이 발생하여 861명이 사망하고 36,926명이 부당당해 하루 평균 33건이 발생해 0.8명이 사

망하고 3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0월과 6월이 각각 4,209건(11.6%)과 4,126건(11.4%)으로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16시~18시가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평일이 평균 5,523건으로 주말 평균 4,337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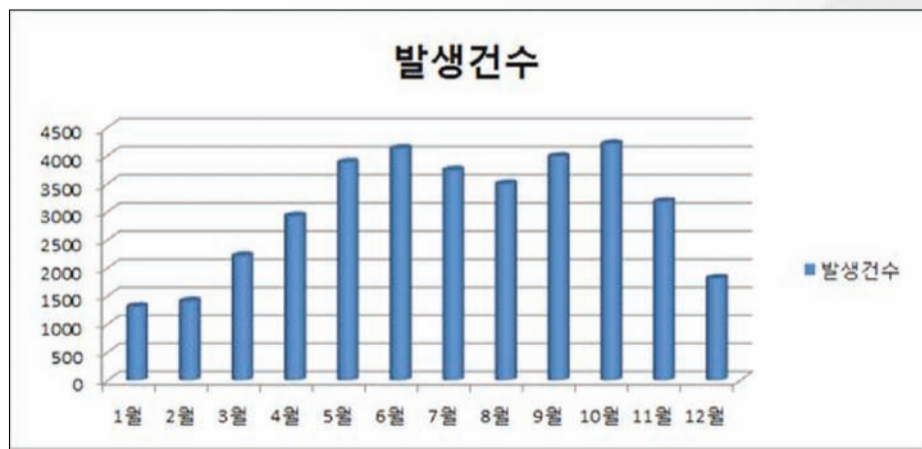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이 넘는 58.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40대가 16.7%를 차지했다. 사망자의 상해 주 부위는 머리가 74.4%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안전모 착용여부가 확인된 사람들 중에서 안전모 미착용자는 9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운전자는 자동차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법규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특별로 지정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의 보도통행이 일부 허용되기는 하나 이는 어린이와 어르신,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의 파손 등 특정상황에서 적용되는 사안으로 일반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보도 통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전거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으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가 머리인 만큼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르노삼성자동차구입 조합원 엔진 결함 무상수리 요구 · 릴레이시위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순락) 소속 르노삼성 자동차 SM5(뉴프 레임 LPLi) 소유자 350여명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4월 26일부터 서구 이현동 르노삼성 서비스센터 앞에서 엔진오일 급감, 엔진헤드 파손 등 차량 결함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연일(토요일 제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집회를 지휘하는 김순락 이사장은 『이 집회는 ‘엔진결함 차량에 대한 엔진교체 및 엔진수리 등에 따른 제반비용 무상실시, 다른 정비업체와 비교하여 20,000원 정도 비싼 삼성협력업체(정비점)의 엔진오일 교환비용을 30,000원 이하 인하, 르노삼성차의 특별대응(엔진 오일 매 5,000km 주행거리내에서 정기적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점에서만 교환하는 등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인정하는 차량만 수리)의 조속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조합)



공제 경쟁력을 말한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직원교육 현장을 가다



공제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택시공제조합의 행보가 2013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매년 초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준비와 계획 하에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연초 계획에 따라 공제 직원들의 대외 경쟁력과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둔 다수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공제서비스 개선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공제조합에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실시된 교육과정 중 단계별·수준별로 실시된 의료연수과정과 공제금 지급 시 발생하는 분쟁과 구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지식 등을 심도 있게 다룬 소송 및 구상 실무과정 등은 참신한 교육 내용과 구성으로 참가한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의료연수과정은 4월 의료연수초급과정을 시작으로 5월 의료연수중급, 6월 의료연수특과과정으로 이어지며 진행되었다. 각 과정은 전 단계 의료연수를 이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며, 과정별로 교육과목 및 수준을 차별화 하여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각 과정을 이수하며 기초부터 심화까지 의료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되었다.

초급과정의 경우 자동차사고에서 가장 비중있고 빈도수가 많은 의학분과인 정형외과 분야와 인체구조, 영상의학 등 배상의학의 기초이론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뒤이어 진행된 중급과정은 정형외

과 이론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는 한편 재활의학, 신경외과 등 초급과정과 차별화 된 심화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6월 마지막으로 실시된 의료연수 특과과정은 대인보상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요즘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안과, 치과, 한의학과의 상해이론 및 치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로 과정이 진행 되었다.

4월 실시된 소송 및 구상 실무과정은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상실무 사례분석, 소송실무,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의 과목으로 진행됐으며, 전 지부에서 소송 및 구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었다.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함께 소송 및 구상절차에 대한 강의가 결코 쉽지 않은 수준으로 진행됐으나 공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로 교육내내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강의 중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했던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 하며 평소 갖고 있었던 문제점과 의문점을 같이 해결하고 모색하는 질의·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상반기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교육과정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속에 마무리 되었으나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회계, 총무 등 다양한 직무분야의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인택시공제조합은 하반기에 의료연수과정을 재실시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는 한편, 공제회계교육, 계약업무과정 등 다양한 직무분야의 교육도 마련하여 보상직무 뿐 아니라 타 직무에 종사하

2013 교통안전을 위한 10가지 실천운동

1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전벨트 착용시 연간 600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양보 및 배려 운전하기
보행자,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 하기

3 정속주행과 경제속도 준수하기
급가속 및 급감속을 자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기

4 주간에도 전조등 켜기
비오는 날 등 기상상태 악화시 주간 전조등 운행으로 교통사고 19% 감소

5 정기적인 자동차관리 하기
매월 1회 이상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소모품 관리하기

1 운전중 휴대전화 및 DMB 시청하지 않기
운전중 DMB 시청은 교통사고의 지름길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2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하지 않기
80km/h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정면 충돌했을 때, 이파트 3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음

3 무단횡단 하지 않기
2011년 도로 횡단중에 사망 1,028명(1일 2.8명), 부상 20,502명(1일 56명) 발생

4 음주운전 하지 않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속도감 저하로 과속운전과 판단력이 낮아짐

5 졸음운전 하지 않기
2시간 운전 후 10분간 휴식하기

**T-SAFE CAR 개인택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2013 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201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벌칙금은 기존 2만~40만원에서 4만~13만원으로, 기존 3만~11만원이던 과태료는 6만~14만원으로 변경된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다.

위반행위는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경쟁은 벌칙금·과태료·발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1월 24일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상금 포함) 한도다.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다.

**T-SAFE CAR 개인택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고 있는 직원들 또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민원방지구 교육 실시, CS 교육강화 등을 통해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대고객 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제조합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교육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교육준비 과정부터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그 속에 배어 있음을 취재기간 내내 느낄 수 있었다. 그 땀과 열정의 에너지가 공제조합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며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모든 일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생활수칙



여름은 6, 7, 8월을 그냥 여름이라 하는 건 아니고 여름이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평균기온이 20도를 넘고 최고기온이 25도를 넘나들면 비로소 여름이라고 한답니다. 모두들 체감하시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 탓인지 여름철이라 할 수 있는 기간도 점점 빨라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무척이나 더우려하는 예상을 하는데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몇가지 관리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인위생 철저

비오는 날씨가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땀 흘린 곳을 비롯 곳곳에 곰팡이 및 박테리아,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등은 피부 트러블에 원인이 되며 인체 내부의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주, 깨끗이 몸을 씻고 의류도 잘 세탁해야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인성 세균감염으로 인해 눈병이나 결막염 등이 발병하기도 하며 피부질환이 노출되기 쉬우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뒤에는 꼭 흐르는 물로 온몸을 깨끗이 씻어 주는 것은 눈병 및 피부질환 예방에 필수요건입니다.

두번째, 음식조심

여름철에는 습도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이 금세 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냉장·냉동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개봉한 음식물은 되도록 빨리 먹어야 합니다. 또한 아깝다고 오래된 음식을 남겨두지 말고 장염, 식중독과 같은 여름철에 빈발하는 질병예방을 위하여 과감히 버리는 것이 건강을 위한 길이며 날 음식은 피하고 육고기등도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적절한 실내 기온 및 청정 유지

여름감기는 겨울감기보다 더 독한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냉방병이라 불리우는 여름감기는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증상도 심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실내에서 에어컨을 키고 있는 일이 많은데 실내와 실외간의 기온차가 크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며 에어컨으로 인한 실내 공기의 더럽혀짐도 감기 유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감기, 냉방병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실내 기온을 유지하고 자주 실내 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적당한 운동

여름철에는 쉽게 지치고 땀도 많이 나 운동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시사철 꾸준한 운동을 하심이 좋은 것임은 당연하겠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인체의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지 않아 쉬 늘어져 활력있는 하루를 보내기 힘듭니다. 따라서 더울때 보다 몸을 자극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수분보충과 규칙적 생활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에 충분한 수분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수분함량이 많은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하여 체액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함은 여름철 건강유지에 필수요건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신체균형을 유지하며 체력을 관리해주는 것은 활력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설마하는 마음에 행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습관화한다면 활력있고 건강한 여름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발명특허 투명한 햇빛차단필름

NANOBLIND



실내 가시광선 78.4% 투과! 뜨거운 여름 직사광선 99.9% 차단!

일반 섀팅필름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실내에서는 선명하게, 뜨거운 햇빛은 완벽히 차단하여 시원한 그늘로 만드는 신기한 필름!

- ★★ 피부 노화 주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
- ★★ 햇빛차단으로 여름철 에너지 15% 절감 ★★
- ★★ 특수 실리콘 점착으로 누구나 간단히 탈부착~!! ★★
- ★★ 섀팅단속 걱정끝~!! ★★
[가시광선 투과율 40%이하 과태료 20만원]



나노브라인트 햇빛차단투명필름

일반 섀팅필름

가시광선 투과율 78.4%
(국가공인시험기관 측정 수치)

가시광선 투과율 20%~30%



나노브라인트 햇빛차단투명필름

일반 섀팅필름

적외선, 자외선 차단율 99.9%
(국가공인시험기관 측정 수치)

일부빛만 차단



승용차 앞유리용 2매
(size 510mm x 175mm)

특판가 83,000원
59,800원

앞좌석 옆유리용 2매
(size 550mm x 500mm)

특판가 128,000원
89,800원

※ EVENT : 제품구매시 나노브라인트 네비게이션필터 + 무료배송 ※기타 사이즈 별도 문의 가능

주문전화 : 1588-1208

쇼핑몰 www.koreamfg.com
국내외 대리점 및 총판 모집



한번 생기면 괴로운 혀바늘, 빨리 없애려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해야...비타민 A와 C도 충분히 섭취해야

운전자 윤 모씨는 요즘 '혀바늘' 때문에 괴롭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생긴 것 같아 '쉬면 낫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없어졌던 혀바늘이 다시 생긴 것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나면 입 안이 괴로운 '혀바늘'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혀바늘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침의 분비량이 줄거나 분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할 때 생긴다. 침에는 라소자임, 락토펜 등 항생물질이 들어 있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일차적으로 방어한다.

게다가 스트레스 등으로 몸이 피로하면 입안 점막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도 떨어져 혀바늘이 생긴다. 이 밖에 국소적인 외상이나 영양장애, 위궤양 등으로 생길 수도 있다.

혀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다. 혀에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설유두라는 조직이 있는데, 혀바늘은 이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설유두는 혀 표면에 골고루 분포하는데 혀바늘이 생기면 맛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도 불편하다.

혀바늘은 특별한 전신질환을 앓고 있

지 않는 한 별다른 치료 없이 1~2주 쉼만 없어진다.

하지만, 혀에 생긴 질환이 2~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프지 않으면서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생기면 혀암 등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혀바늘은 영양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비타민 A·C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입안 행균액을 이용하여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며 물을 자주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또 맵거나 짠 음식, 뜨겁고 딱딱한 음식은 입안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담배와 음주 등은 입안에 침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삼간다.

광고기사

차창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을 막고싶다~ 나노브라인트 햇빛차단필름이 해결해 드립니다.

햇빛은 가시광선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이 햇빛을 전부 가리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뜨거운 햇빛은 가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일부분만 가려서라도 뜨거운 햇빛을 막아보자고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섀팅필름이다.



기존의 섀팅필름들은 일부 빛만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색상이 달리 보이거나 어둡게 보일 수 밖에 없고, 햇빛을 가리는 양에 따라 색상이 짙어지면서 어둡게 된다.

나노브라인트 필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획기적인 발명특허제품이다.

세계 어느곳에서도 만들지 못한 필름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발명해 낸 명품인 것이다.

초미세 가공기술로 투명필름을 수천개로 기울여서 쪼갬 다음에 그 사이에 카본 차광막을 삽입한 후에 결합하여 필름으로 만든 것이다.

햇빛의 내리쬐는 각도에 따라 완벽하게 차단을 하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실내에서는 외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광학필름 공법으로 탄생되어진 이 필름의 또 하나의 추가적인 특징은 쉽게 누구나 붙이고 떼어내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부착을 하고 다니면서 뜨거운 직사광선은 차단하여 에어컨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햇빛 유입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떼어내었다가 다시 여름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용 차량 전용으로 운전석 옆유리와 전면 유리 한세트 구성으로 특별 할인 행사 진행중이다. <문의전화 : 1588-1208>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대출안내

자동차구입자금대출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변동금리)	상환방법	할부추천서 발급비용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고배당 적용시 대출금리 우대효과
최고 1,600만원 이내	36개월이내	연5.30%	원금균등 분할상환	5만원~7만원 개인택시조합 복지회에서 수납	없음	연4.91% (2012년도 기준)

▶ 서울 개인택시조합 복지회에서 발급하는 할부추천서로 대출하여 드립니다.

대출상품 특징

하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타 금융기관은 1% ~ 1.5%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둘! 이용고배당 적용시 대출금리 우대효과 : 연 4.91% (대출금액 1600만원, 2012년도 기준)

셋! 개인 신용도 및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 (타 금융기관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5.5% ~ 7.0% 적용)

◆ 개인택시 대·폐차시 차량구입에 도움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 할부 금융사는 할부기간 및 기타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MG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문의전화 : 02) 423-5087~9 본점 및 각 지점

나의 금융브랜드 신한금융그룹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3-2-356호
6-000-2482 / 2013. 6. 10 현재

신한My-Taxi 행복대출

개인택시 사장님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보험담보 대출상품입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5.01% 이상

(원금분할상환방식, 금융채6개월물, 2013. 6. 10 기준 / 추가거래에 따른 우대 최대 0.6% 할인금리 적용한 경우)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1년 이하
- 원금분할상환 : 3년 이상 ~ 5년 이하

준비서류

-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 차량등록원부
- 소득증명원

고금리 할부대출 전환은 **MyCar 신차 대환 대출** 신차구입은 역시! **S-MORE MyCar대출**

대출금리 최저 연 4.64% 이상

(COFX(잔액) + 2.2%, 6개월 변동금리, 2013. 6. 10 기준 / 추가거래에 따른 우대 최대 0.8% 할인금리 적용한 경우)

신한은행 홈페이지 www.shinhan.com / 고객센터 1577-8000

- ※ 대출 약정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 중 50%는 고객부담이며, 대출상환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만기 후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가까운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My-Taxi 행복 이벤트

신한카드가 개인택시카드 고객님께 총 4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CASE 1 신한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최초 발급 및 이용회원 + 신한은행 개인택시사업자 대출보유

CASE 2 현재 소지하신 신한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이용회원 + 신한은행 개인택시사업자 대출보유

- ※ 단, CASE1, CASE2 대상 고객님 중 총 400명을 추첨하여 10만원 캐시백 예정
- ※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캐시백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발표 및 캐시백 지급은 9월 중순 이후예정

▶ 행사기간 2013. 6. 14 ~ 8. 31(3개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세한 안내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의 연체이자율은 연 23.0% ~ 연 29.5%로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130527-0436-001호(2013. 06. 14 현재유효)



택~시!
신한은행~

개인택시 사장님 행복금리 5.01%로 우대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울산조합을 가다

부부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열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합 가꾼다

울산조합 김우덕 이사장



울산광역시

는 시민소득이 전국 1위다. 또한 전국 광역시중 유일하게 전철이 없을 뿐 아니라 KTX울산역, 울산공항 등이 시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어 장거리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택시 운송 경영환경이 좋은 지역이다. 그런데도 “울산지역도 전국적인 택시경영난을 빚겨가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다”고 김우덕 이사장은 말한다.

“현재 택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을 타개하려면 택시의 공급과잉이 시급히 해소되고 운송경비의 과다요인이 되고 있는 LPG가격이 리터당 8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 김 이사장은 진단한다.

“택시의 경영난은 조합이나 조합원의 노력으로 해결될 요인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경영난 원인을 만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김 이사장은 강조한다.

◆운송경영 환경 개선

울산조합은 조합원들의 운송수입 증대를 위한 1100대 규모 ‘태화강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친절한 택시’ ‘청결한 택시’ ‘편리한 택시’로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브랜드 택시 사업은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일일수입이 3만여원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울산조합은 1차에 이어 2차로 브랜드택시 300대를 증차하여 현재는 3581명의 조합원중 1100명의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조합은 브랜드 택시 도입을 위해 대당 100만원씩 모두 12억원을 울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울산시의 젓줄인 태화강을 상징하는 ‘태화강콜택시’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친절한 개인택시로 각인되어 하루에 6000여콜이 걸려올 정도로 성공한 운송경영 환경 개선사업이다.

2012년 1월 4일에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우덕 이사장은 곧바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울 1월 1일 택시 기본료 2300원을 2800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물가와 운송경비 증가에 따라 택시요금도 동시에 인상하는 ‘택시요금 연동제’를 추진하고 있다.

“택시요금 연동제는 울산시장을 비롯한 교통담당 국장도 검토해볼만한 과제로 환영하고 있다”고 김 이사장은 말한다.

또한 울산조합은 울산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블랙박스, 카드결제기 등 장치를 추진 택시기능을 향상시켰다.

디지털 기록계 장착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에 운행기록계 장착비용 지원요청을 하고 김우덕 이사장이 나서서 꾸준하게 벌인 교섭 끝에 대당 10만원씩 재정지원을 확보했다.

울산조합은 올해에 전 조합원에게 운행기록계 장치를 완료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주관업체로 (주)에세텔, 뱅사로 (주)한국스마트미터기, 제조업체에 (주)한국 MTS와 (주)중앙산전을 선정했다.

“운행기록계 장착이 완료되면 택시기능 향상은 완료되지만 조합원들이 돈벌이 할 수 있는 환경은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김 이사장은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조속히 보상감차를 실현,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주요 운송경비인 LPG값을 적정선으로 끌어내리고 연료 다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택시지원법을 만들어야 한

다”고 촉구한다.

한편 울산조합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먼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해 냈다.

또한 택시승강대 증설을 추진하고 시 변두리 지역에는 택시승객을 기다리며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기능있는 주차장 설치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사업 추진

울산조합은 2개소의 임대충전소를 직영하고 있다. 제1복지충전소는 2006년 1월 남구 옥동에 개소했고 제2복지충전소는 2007년 7월 1일에 북구 진장동에 개소했다.

복지충전소는 조합이 직영함으로써 정량, 정품으로 조합원에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결국 싼값으로 LPG를 사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복지제도이다.

조합 복지충전소 운영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의 이익배당금액 572,883,129원을 1리터에 23원97전으로 계산하여 조합원들이 충전한 양으로 배분하기로 의결, 올 상반기에 나누어 준다. 또한 6월1일부터는 단체 리베이트 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충전할 때마다 1리터에 60원씩(충전 50원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현재는 조합사육이 협소하고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어 어쩔수 없지만 2~3천평 규모의 부지를 마련, 조합사육에 충전소, 정비사업소 등을 갖춘 복지충조합 사육 건립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소유 충전



▲제1복지충전소



▲제2복지충전소

소가 건립되면 임대충전소에 지불하는 임대료를 차단하게 되어 그 돈으로 조합원들의 체력단련 등 복지사업에 쓸 수 있어 우선 임기내에 부지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꿈은 이를 수 있다며 신념을 표현한다.

◆소통 · 화합하는 조합

김 이사장은 조합 출퇴근을 개인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조합원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는 출퇴근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운전하는 조합원과 격의없는 대화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다.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조합원에게 승객이 되어 적은 보탬이 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런 소통의 노력은 조합업무 진행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투명경영을 강조하는 김 이사장은 ‘열린 행정으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합’을 조합 실천목표로 정해놓고 있다. 매년 10월에 하는 체육대회를 한마음 체육대회로 이름 붙이고 체육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화합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한마음체육대회는 조합의 가장 큰 행사이고 중요한 행사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체육대회는 준비기금이 1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부족하여 섭섭한 점이 많았지요. 그래서 울산시에 도움을 요청 올 체육대회부터는 지원을 받게되어 부부체육대회로 격상시킬예정입니다. 1인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는 가정은 가장 편한 안식처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합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 화합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글 · 사진 김관술>

울산조합을 이끄는 이사와 대의원



김주수 전무이사



장진환 감사



박영웅 감사



권오만 이사



이병국 이사



고석준 이사



이재호 이사



전순갑 이사



조상원 이사



정근태 이사



정한익 이사



형용운 이사



이강덕 이사



김남욱 대의원



손재호 대의원



김문태 대의원



이만우 대의원



김금출 대의원



강원우 대의원



박성호 대의원



이상길 대의원



김진수 대의원



문용만 대의원



이재관 대의원



김대수 대의원



민천득 대의원



조영기 대의원



최종림 대의원



장병철 대의원



윤동자 대의원



정웅교 대의원



최철호 대의원



박정열 대의원



정성화 대의원



신선매 대의원



김상학 대의원



우진영 대의원



김명근 대의원



기찬이 대의원



김상규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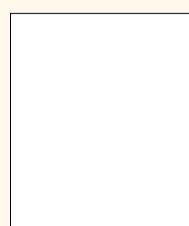
김동문 대의원



김경식 대의원



서상철 대의원



권오선 대의원



조합탐방

광주조합을 가다



“조합 운영 투명성 회복시켜 조합원 화합 이룰 터”

광주조합 김문옥 이사장

“어느때보다도 택시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조합에 오면 ‘여기가 우리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풍성해진다”고 남일초 조합원은 말한다.

버스운전을 30년하다 1990년 6월30일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올해로 23년째 개인택시를 경영하는 남 조합원은 “조합에 오면 조합입구에 있는 SK충전소 풀 사인이 ‘어서오세요’ 하고 반기고 경사진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널따란 주차장에 버티고 있는 정비공장 미터기 수리센터, 복지매장이 있어 차량정비를 쉽게 할 수 있고 공제업무, 행정적인 민원 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광주조합은 남일초 조합원이 자랑할 만큼 짜임새있는 복지시설을 갖춘 복지조합이다.

올해로써 9대째 이사장을 탄생시킨 광주조합은 조합원 4796명으로 구성된 도시형 복지조합이다.

◆투명경영 추진

“광주조합은 조합사옥이나 직영충전소 등 어느정도 조합원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발전과정은 투명하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끼여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회복하려다 보니 조합원 화합이 깨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털어내고 부정과 비리와 단절하고 나면 ‘비온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조합원들의 화합은 튼튼해지고 투명경영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 이사장의 의지는 결연하다.

광주조합은 김문옥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조합현안은 이사회에 회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조합업무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원과 총무부

장 등을 새로운 인사로 교체했다. 또한 조합 정관을 개정 대의원의 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조합경영이 투명하게 됩니다. 조합경영이 투명하면 조합 주인은 조합원이 되고 임직원은 조합원을 위한 봉사자로 변하게 됩니다.” 김 이사장은 광주조합의 주인은 4796명의 조합원이라고 말한다.

◆복지조합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 본천동 456번지에 자리잡은 조합사옥은 그 자체가 복지시설이다. 대지 2200평의 조합사옥에는 조합과 공제지부가 입주해 있고 제1복지충전소와 경정비공장, 복지매장 등이 있어 조합원이 조합을 방문하면 민원업무, 공제, LPG충전, 차량정비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복지센터다.

조합원 복지의 꽃으로 불리는 LPG충전소는 조합원 소유인 제1복지충전소, 임대로 경영하는 제2복지충전소이다 직영의 효과를 가미한 제휴충전소까지 조합원의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조합 복지충전소는 그렇지 않아도 유가부담이 큰데 연비가 보장된 정품의 LPG를 정량으로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다. 조합 복지충전소는 리터당 40원씩 하던 적립금을 2011년 7월부터 75원으로 인상 조합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

또한 광주조합은 조선대학교 병원 등 광주시내 6개 병원을 조합 협력병원으로 지정, 조합원 본인은 20%를 감면받고 가족도 일정금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누린다. 또 장례식장 4곳, 자동차 정비공장 1곳과 청소년 지원센터, 한국전력과도 협력업체를 체결 조합원의 복지혜



광주조합을 이끄는 이사와 대의원



유기근 감사



이양호 감사



이창준 이사



조재영 이사



조성운 이사



유천근 이사



국승두 이사



신현수 이사



안중민 이사



조동용 이사



황익필 이사



안창민 이사



이태현 대의원



정준모 대의원



최한주 대의원



김형래 대의원



오택규 대의원



장종하 대의원



서한택 대의원



김준석 대의원



강인천 대의원



정해용 대의원



백기수 대의원



차용남 대의원



나용목 대의원



배연수 대의원



변용암 대의원



박남규 대의원



김성현 대의원



김성수 대의원



김성수 대의원



안두환 대의원



오치술 대의원



강형석 대의원



장현중 대의원



황기주 대의원



김태환 대의원



박상선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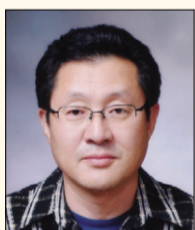
김영만 대의원



김재환 대의원



유성수 대의원



차현태 대의원



조규환 대의원

◆택시기능과 입법 추진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조합 전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광주조합은 택시카드 결제기,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도 일부 장착하고 미장착 조합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모두 장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조합은 연합회와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가칭 택시대중교통법과 대체입법을 추진, 개인 택시 사업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법이 지난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국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입니다. 대중교통법을 반대하는 정부에서는 ‘택시지원법’이란 이름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도 연합회도 택시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법률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줄다리기를 할 수 없어 조속한 입법을 추진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글·사진 김관술)

택을 넓히고 있다. 한편 광주조합은 조합건물내에 복지 이발관 설립을 추진하고 면허 양도자에 대한 전별금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조합은 교통약자 전용택시 운행을 도입 지난해 9대를 운행하고 1대에 월 240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어 조합원의 운송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운송여건 개선 추진

광주조합은 조합원의 운송수입 개선 사업으로 브랜드 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750대를 선발 1차적으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시와 재정지원을 협의하여 콜택시 증차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조합은 부족한 택시 승강장을 해소하기 위해 증설을 요청 지난해에 광주시 추경예산에 반영 문흥동 대주아파트, 양산동 북광주 농협앞 등 7곳에 승강대를 늘리고 증심사 입구 등 5곳은 신설예정 지역으로 결정하고 올해에 승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시내 할증지역을 통과할 때 경계판이 없어 승객의 민원이 발생하고 조합원 불편이 있어 ▲무등산 방면 ▲임곡동 방면 ▲삼도동 방면 ▲동곡동 방면 ▲본량동 방면 ▲승촌동 방면 등에 택시 할증지역임을 알리는 경계판을 광주시에 건의하고 조합간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다.



동호회 탐방
울산조합 축구연합회

5개 축구 동호회가 뭉친 축구연합회, “조합축구 우리가 책임진다”

울산조합 축구연합회는 조합원들의 축구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다. 8년전 ▲백마 ▲녹색 ▲송림 ▲청운팀등 4개팀이 주축이 되어 탄생한 축구연합회는 히어로 동호회가 가입하여 현재 5개팀밖에 되지 않지만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수는 170여명으로 대가족으로 성장했다.

조합원들에게 인기종목으로 꼽히는 축구는 울산조합내에서도 수많은 축구동호회가 운영되고있다. 동호회별로 휴조때마다 경기를 갖고 건강을 다지며 월례회를 하면서 친목을 키우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

“축구가 대중적 스포츠로 널리 보급되면서 울산 지역 안에서도 직장대항 경기가 활발해졌지요. 그러다보니 우리 조합내에서도 외부경기에 출전할 기회가 빈번히 발생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합회를 만들게 됐지요” 허승호 회장은 연합회 탄생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2004년 울산조합 축구동호회가 참가하는 축구연합회가 조직된 후 매년 4월에는 연합회장배 축구경기가 열리고 10월에 열리는 이사장기 시조합 체육대회 축구경기가 열린다. 또한 5개 축구동호회는 두차례의 정기경기를 통해 우정을 쌓고 친목을 다지는 시합을 벌여 우승팀을 선발하고 순위에 따라 출전권을 받는다.

◆축구동호회 발전적 변화

조합에 축구연합회가 창립된 후 조합내 축구동호회에는 기량이 발전하고 친목의 지평이 넓어지는 변화가 생긴다.

“동호회 회원들은 건강과 취미로 즐기던 축구를 이

왕이면 선수로 뽑히기 위해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연습량이 많아지면서 축구기량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허승호 회장은 말한다.

5개 동호회원들은 직장대항 축구 출전권을 따기 위해 선수 스스로가 기량을 담금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동호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맴돌던 회원간의 친목도 5개팀이 참가하는 경기 기회가 확대되면서 170명의 조합원으로 넓혀졌다.

◆회비로 연합회 운영

연합회의 살림은 팀별로 받는 가입금 10만원과 매월 동호회가 내는 회비 5만원으로 운영한다.

회비를 내는 동호회가 5개팀밖에 되지 않아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회원들은 동호회를 뛰어넘는 더 큰 연합회 일원이라는 긍지가 높다.

“170여명나 되는 연합회를 운영하다보니 가입비나 회비만으로는 살림이 쪼달리게 마련이지요. 설상가상으로 팀대항 경기를 주관하다보면 어찌다 부상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회칙에는 1개월 이상 부상자에게는 쌀한가마니를 지급한다는 규정밖에 없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사장기 대항 경기때 부상회원이 발생했는데 김우덕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허승호 회장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연합회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고 말한다. 연합회 살림은 회장이 총무와 감독을 임명하고 운영위원은 동호회의 회장, 총무, 감독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운영위원이 꾸려진다. 5개 동호회별 임원은 다음과 같다.



▲허승호 회장

◆백마축구동호회(가조)

· 회장 : 유병수 · 총무 : 정덕우 · 감독 : 장용호 · 전용구장 : 효문구장 · 회원 : 30명

◆녹색축구동호회(나조)

· 회장 : 한기찬 · 총무 : 김철수 · 감독 : 김판규 · 전용구장 : 태화구장 · 회원 : 30명

◆송림축구동호회

· 회장 : 우득기 · 총무 : 강화진 · 감독 : 정재석 · 전용구장 : 태화구장 · 회원 : 60명

◆청운축구동호회(다조)

· 회장 : 최영호 · 총무 : 김병욱 · 감독 : 이재현 · 전용구장 : 구장 · 회원 : 30명

◆히어로축구동호회

· 회장 : 윤재영 · 총무 : 이재관 · 감독 : 장상철 · 전용구장 : 양정구장 · 회원 : 20명

☎문의전화 : 011-871-5586 허승호 연합회장



▲울산개인택시 송림 축구동호회



동호회 탐방

광주조합 '자연의소리 앙상블'

“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연의소리 앙상블’ 소외계층 찾아 음악봉사 활동 전개”



'자연의소리 앙상블' 동호회원들이 자선공연을 하고 있다.

빛고을 광주조합에는 악기연주와 노래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는 작은 음악회가 있다. 색소폰, 기타, 드럼 등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음악을 하던 6명의 조합원이 뭉쳐 '자연의소리 앙상블'이란 음악동호회를 결성, 소외받는 음지를 찾아 음악봉사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5월 7일 조합강당에 마련한 연습실로 조합원들을 초청 첫 공연을 시작한 '자연의소리 앙상블'은 1년동안 1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음악봉사활동을 해왔다.

◆지휘자도 없는 작은 악단

'자연의소리 앙상블'은 지휘자가 없는 5명의 연주자와 1명의 가수만 있는 미니악단이다.

악단구성은 베이스기타 김재영, 일렉트릭기타 민삼홍, 정종현, 드럼 구영대, 색소폰 정재영 조합원이 연주를 맡고 있고 노래는 김말레 조합원이 한다.

이들 단원들은 평소 취미활동으로 음악을 해와 실력은 아마추어이지만 근성은 프로를 능가한다.

이제 겨우 1년남짓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열정은 대단하다.

김문옥 이사장의 배려로 조합강당에 연습실을 마련한 '자연의소리 앙상블'은 때로는 경영난에 심신이 고단한 조합원들을 위한 음악의 쉼터를 제공하고 소외받는 장애우를 연습실 강당으로 초청 공연을 해주고 노인들의 요양원을 찾아가 음악회를 연

다. 특히 이들 단원은 공연을 통해 음악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객석에 있는 관객이 무대로 나와 노래를 부를수 있도록 연주를 제공하고 노래방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연주자와 객석이 함께 즐기는 음악회다.

동료 조합원에 대한 음악선물로 시작한 봉사활동은 1년동안에 ▲광주 작은예수회 장애우 초청 음악회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정년퇴직자 위로공연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 위로공연 ▲고

흥군 노인 종합요양원 위문공연 ▲화성군 삼성노인 전문병원 ▲광주광역시 택시근로자 위로공연 ▲광주 에버그린 실버하우스 은빛사랑 음악회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

◆지독한 음악사랑

6명의 단원은 개인적으로 음악활동을 하다가 2009년에 '자연의소리 앙상블'이란 이름으로 음악동호회를 결성하고 조합의 도움으로 조합의 강당엔 연습실을 마련하고 운영은 매달 3만원씩 내는 회비로 운영한다.

단장인 정재형 조합원은 17년째 색소폰을 불고 있는 베테랑이다. 광주 남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삼홍씨는 15살때부터 기타에 심취되어 현재까지도 기타줄을 튕기는 기타리스트다.

드럼을 치는 구영대씨는 조합원으로 있다가 차량을 양도하여 현재는 조합을 떠났지만 '자연의소리 앙상블'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일주일에 2회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하는 단원들은 자신들의 삶도 고달프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음악이라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음악에 조예가 있는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하여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로 발전하여 조합마당에 특설 무대를 설치하고 전체 조합원을 모셔놓고 공연을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정재영 단장은 '자연의소리 앙상블'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설명한다.

〈김관술 기자〉





GRANDEUR TAXI

SONATA TAXI

SONATA TAXI TRANSFORM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국민택시
현대자동차 TAXI

안전성과 성능은 물론 경제적인 연비와 편안한 승차감까지!
 현대자동차 택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탈수록 분명해집니다

GRANDEUR TAXI SONATA TAXI SONATA TAXI TRANSFORM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서비스 080-600-6000 *그랜저 택시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3.0LPI 복합 8.2km/ℓ (도심: 6.8km/ℓ, 고속도로: 10.6km/ℓ) | CO2 배출량: 166g/km | 배기량: 2,999cc | 공차중량: 1,620kg | 자동 6단(5등급) *쏘나타 택시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LPI(A/T) 복합 9.3km/ℓ (도심: 8.1km/ℓ, 고속도로: 11.5km/ℓ) | CO2 배출량: 14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45kg | 자동 6단(5등급) > 2.0LPI(M/T) 복합 9.9km/ℓ (도심: 8.9km/ℓ, 고속도로: 11.5km/ℓ) | CO2 배출량: 135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25kg | 수동 6단(4등급) > 2.0LPI(S/G) 복합 9.7km/ℓ (도심: 8.5km/ℓ, 고속도로: 11.5km/ℓ) | CO2 배출량: 139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45kg | 자동 6단(4등급) *트랜스폼 택시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LPI(A/T) 복합 7.8km/ℓ (도심: 6.8km/ℓ, 고속도로: 9.6km/ℓ) | CO2 배출량: 174g/km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510kg | 자동 4단(5등급) > 2.0LPI(M/T) 복합 8.5km/ℓ (도심: 7.7km/ℓ, 고속도로: 9.7km/ℓ) | CO2 배출량: 159g/km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420kg | 수동 5단(5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미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집니다
 회원혜택: 블루점점 케어서비스 / 긴급출동 / 블루포인트 / 견인서비스